

“왜 인간에 천착하나구요? ...소설 쓰며 알아가는 중”

광주 출신 신예 작가 정용준

작품마다 신선한 감각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신예 작가, 집요한 묘사와 담담한 문체가 인상적인 작가...

광주 출신 정용준(34) 작가. 그를 바라보는 문단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역 출신 젊은 남성 소설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의 활발한 작품 활동은 단연 눈길을 끈다.

최근 문예지 '문학동네' 가을호(80호)는 젊은 작가 특집으로 정 작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 작가는 남성 패셔니 '아레나움(+)와' 문학고지성사가 기획한 '더 클로즈드 노블(The Closet Novel) : 7인의 옷장'에도 참여했다. 이 작업에는 한국문학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설가 은희경, 편혜영, 김중혁, 백가흠, 정이현, 손보미 등이 함께했다. 정 작가의 참여는 문단 내 그의 입지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조선대학교 러시아어과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09년 '현대문학'에 단편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2011년 단편 '떠떠떠, 떠'가 제2회 젊은 작가상에 당선됨으로써 일약 문단의 중심부로 진입한다.

얼마 전 장편 '바벨'을 펴내고 새 작품 창작에 돌입한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정 작가는 습작기 시절을 비롯, 문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소설을 쓰고 싶었다. 전공과 관련된 수업보다 문창과에 개설된 문학 관련 강의를 많이 들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승우 선생님이나 나희덕 선생님 같은 분들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었다.”

그는 습작기 시절 좋은 책은 어떤 책일



찬물처럼 고요하고 냉정한 느낌
흡입력 있는 문장과 집요한 묘사

“평생 700편은 쓰고 싶어요”

까,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소설을 쓴다는 자기 확신과 새로운 것을 쓰고자 하는 열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이정준·이승우 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 선배들의 소설은 나 외에도 많은 문학도들이 전범으로 삼을 만큼 독특한 아우라가 있다. 소설 외에도 틈틈이 인문학 관련 책도 탐독했다. ‘이것이 인간인가’와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책들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사유를 하곤 했다.”

첫 소설집 ‘가나’에 수록된 단편들은 하나같이 수준이 고르다. 기발한 감각도 예상치 못했다. 장편소설 ‘바벨’이 출간됐을 때는 말의 무게를 성찰하는 작가적

상성력에 문단의 감탄이 쏟아졌다.

“인간에게 있어 언어와 죽음은 가장 근원적인 고민이다. 동시에 인간 내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기제다. 왜 그런 관심이 있는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소설을 써가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중이다.”

그의 소설에선 찬물처럼 고요하고 냉정한 느낌이 묻어난다. 흡입력 있는 문장과 묘사가 만만치 않다. “작가는 상황을 보여주면 된다”는 소설작법의 고전적 정의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아마도 작가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나머지 영역은 과감하게 독자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지론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정 작가가 소설가가 된 것은 부친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 목회자였던 부친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늘 글을 쓰고 원고를 다듬었다. 정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타자를 치고 글을 읽는 아버지를 보아왔다.

지금 그는 서울예대와 조선대에서 강의를 한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바쁜 스케줄 중에도 틈틈이 글을 쓴다.

정 작가는 첫 장작집 ‘가나’의 작가후기에서 “평생 700편 정도의 소설을 쓰고 싶다”고 당당하게 밝힌 바 있다. 물리적으로 매달 단편 1편씩을 쓴다고 가정해도 60년이 걸리는 시간이다.

“시적인 표현이다. 성실하고 우직하게 창작에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의 포부가 ‘허풍’으로만은 다가오지 않는다. 당차고 야무진 그의 꿈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그의 작가적 역량을 아는 이들이라면 한뼉쯤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석 시집 ‘사슴’ 초판본 7000만원

문학서적 사상 최고가 낙찰

천재 시인 백석(사진·1912~1996)의 유일한 시집 ‘사슴’ 초판본이 19일 7000만원에 팔렸다.

경매회사 코베이가 이날 오후 서울 수운회관 6층 코베이 전시장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여우난골족(族)’ ‘노루’ 등 시 33편이 실려 있는 ‘사슴’ 초판본은 5500만원으로 입찰이 시작돼 7000만원에 낙찰됐다. 국내 문학서적 경매 사상 최고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베이 관계자는 “전문 소장가가 7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면서 “3년 전 운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이 1700만원에 낙찰된 적이



있는데 문학서적으로는 최고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36년 1월 선공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한 ‘사슴’의 초판본 가격은 당시 2원(圓)이었다. 100부 밖에 찍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희귀본으로 꼽힌다. 시집 뒤편에 저작(著作) 검 발행자 백석이라고 명기돼 있어 백석이 자비로 시집을 펴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 정기연주회

21일 호신대 예음홀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 제9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예음홀에서 열린다.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통 클래식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이다.

멤버는 테너 박재욱(광주교대 명예교수),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호신대 명예교수), 바리톤 이은철(전남과학대 교수), 소프라노 구성희(전남과학대 겸임교수), 피아니스트 김명(광주교대 교수), 서영화(조선대 교수), 한정숙(호신대 교수)이다. 문의 062-230-7346. 연주 레퍼토리는 ‘가을을 남기고 간



테너 박재욱 소프라노 강양은

사랑’, ‘아웨는 나의 목자’, ‘단풍잎 지는 소리’, ‘그리운 금강산’, ‘이별의 노래’ 등 성악곡과 쇼팽의 ‘야상곡 op.9 1번’,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등이다. 피날레곡은 4중창으로 들려주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문의 062-230-73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당극 ‘꽃 같은 시절’ 공연

놀이패 신명 21·22일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농사 짓느라 바쁜 할매들이 시위대가 됐다. 평온하던 마을에 난데없이 석재 공장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해서다. 한 데, 시위 현장은 유쾌하게 그치지 않다. 취조실 풍경도 마찬가지다. 할매들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객석에선 연신 웃음이 터진다.

놀이패 신명(대표 오숙현)이 오는 21일 오후 8시, 22일 오후 5시 두차례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KBS광주방송총국)에서 마당극 ‘꽃 같은 시절’을 공연한다.

소설가 공선옥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꽃같은 시절’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놓지 않았던 전라도 어매들이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마당극 전문단체 놀이패 신명의 작품답게 시종일관 웃음과 해학이 넘쳐나는 작품으로 배우들의 연기가 압권이다. 지난 2013년 초연 후 올해 광주광주브랜드축제 참가작으로 선정돼 관객들을 만났으며 제주 감정, 경남 밀양, 경북 청도 등 국가 권역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순회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전 예약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감동후불제’로 공연이 끝난 후 감동을 받은 만큼 지불하면 된다. 예약문의 010-3065-4543 / 062-527-7295 /김미은기자 mekim@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꽃같은 시절’

점심식사 뒤 차 한잔에 음악을

28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서 ‘런치 콘서트’...커피 제공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8일까지 평일 낮 12시 30분부터 40분 동안 빛고을시민문화관 입구에서 점심 식사 후 차 한 잔 마시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런치 콘서트’를 연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콘서트에는 그루터기, 모이즈 앙상블, 사운드 유니온 등 광주문화재단 문화나무예술단 소속 문화예술단체들이 참가해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짧은 문화 휴식을 제공한다. 이들 단체는 퓨전국악, 클래식, 퓨전 재즈, 팝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커피북은 집’에서 제공하는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 광주문화재단과 커피북은집은 지난 2011년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런치 콘서트’ 추진 결과를 살펴본 뒤 앞으로 런치 콘서트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문의 062-670-746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